

첨단 3지구 산단 역대급 고분양가 우려

AI 집적단지·국립 심혈관 센터·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호재 기존 산단보다 2배 높은 토지 보상비에 기업 유치 차질 예상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AI 집적단지)가 들어서는, 국립 심혈관 센터 설립 등이 예정된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산업단지(첨단 3산단)가 본격적인 분양을 앞두고 역대 최고 분양가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높은 토지 보상비 등으로 인근 산단보다 평균 2배 이상 높은 분양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공장) 유치 등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6일 시행자인 광주 도시공사에 따르면 각종 행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내년 상반기 첨단3지구 산업단지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와 전남 장성 경계를 포함하고 있는 첨단 3산단은 110만6000㎡ 규모이며, AI 집적단지와 국립 심혈관 센터 설립,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등이 예정돼 입지적으로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유치업종은 금속, 전자, 전기, 기계, 자동차, 제조 등이다.

하지만 산단 조성 원가 기준 ㎡당 92만2000여

원, 평당 305만원으로 잠정 추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분양한 광주 주요 산단 ㎡당 분양가만 보더라도, 빛그린 국가산단 27만 6000원(평당 91만여원), 에너지 밸리 국가산단 41만 1000원(135만여원), 에너지 밸리 일반산단 45만 3000원(149만여원), 평동 3차 일반산단 33만 7000원(111만여원)으로, 평균 평당 121만여원을 기록하고 있다.

광주 도시공사는 아직 첨단 3차 산단 분양가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단순 산단 조성원가만을 기준으로 해도 최근 가장 비싼 분양가를 보인 에너지 밸리 산단의 2배를 뛰어넘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주 예정 업체들 사이에선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입지 여건이 아무리 뛰어나도 산업단지 분양가를 기존 산단보다 2배 이상 지급하려는 업체는 별로 없을 것"이라며 "불과 1~2년 전 평당 100만원 초반대에 분양됐던 신규 산단에 대해서도 당시 업체에선 땅값이 너무 높다는 말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인공지능과 심혈관 관련 기업유치 등을 통해 첨단 3차 산단 활성화를 이끌어야 할 광주 도시공사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신도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첨단 3지구 특성상 다른 산단보다 토지 보상비 등이 많이 투입된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산업유치 조성을 낮출 수 있는 상업용지나 지원시설 용지 분양도 쉽지 않은 상황 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광주 도시공사는 분양 시기가 임박해 집에 따라 '분양 완만'과 함께 일부 수익을 내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익을 포기하고 손실만 보지 않는 선에서 분양한다 해도 지역 내 '역대 최고 분양가'라는 타이틀을 피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다.

광주 도시공사 관계자는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산업단지 조성은 산업 용지를 활용하는 대신 상업용지, 지원시설 분양 등을 통해 수익을 내기도 하는데, 요즘은 부동산 등 전반적인 경기 침체 여파로 영리 목적 분양 수익도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청년인 그대여, 기대 말고 줏대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2> 김경한 이야기 브릿지 대표

"선거가 기다려진다" 얼마나 신기루 같은 말인가. 현실은 투표율로 고스란히 나타난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시는 투표율 37.7%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이로써 정치에 대한 낮은 기대감을 확인했다.

특정 지역에 특정 정당이 우세한 흐름은 지역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호남과 영남, 간곡히 그 고리를 끊을 수 있게 지역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인 물은 썩을 수밖에 없고, 감시와 경쟁이 없는 곳은 성장과 발전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광주는 지난 투표를 통해 불편함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청년으로서 낮은 투표율이 답이 아닌 것이다.

여전히 청년층의 투표율이 기성세대 대비 낮은 사실은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년들은 왜 투표하지 않을까? 이유는 다양하겠으나 하나로 설명한다면 정치가 기대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의 부모 세대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경제 성장기에 청년기를 마추었고, 열심히 일하면 먹고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충족되었다.

대표자의 발전적인 공약이 경제 성장기와 함께 더 나은 삶을 경험하면서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를 누린 것이다. 성장의 시대를 지나 정체와 불황의 시대를 마주한 지금의 청년들은 결코 알 수 없는 경험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표자의 말에도 실업률은 높아지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고 하지만 출산율은 0.7명으로 전 세계에서 최

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표자가 말한 비전과 방향이 청년의 기대와 일치하기란 쉽지 않기에 청년들은 점차 정치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청년 세대를 비판하기에 앞서 지금의 청년들이 정치를 통해 기대를 충족시킨 경험이 있었는가부터 살펴봐야 한다.

매스컴에는 정치인의 비리와 특혜에 대한 뉴스가 연신 쏟아진다.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뽑으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회가 옳은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투표장에 나서기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새로운 인물에게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일을 수없이 반복하면서도 우리는 또 기대하곤 한다. 반복되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청년들은 민주주의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삶의 기준을 나에게 두는 방식을 제안하고 싶다. 본인에게 득이 되는 명확한 기준과 소신으로 사람을 보고 평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 것은 정치공학적 문제에 얽혀 기계적으로 표를 주는 게으른 사람이며, 누군가의 요청이나 부탁에 움직이는 쫓대 없는 사람이고, 누군가를 도와 줌으로써 삶의 단계를 몇 칸 뛰어넘고 싶은 탐욕스러운 사람이라 생각한다.

청년도 기대되는 참정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기대가 어긋나면 들이킬 수 없기에 기대를 넘어 줏대 있는 참정권을 행사하길 바란다. 지역과 세대의 가치를 뛰어넘어 사람을 보고, 공약을 살펴 더 나은 사회로 가는데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청년인 그대여, 기대 말고 줏대를.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다산안전대상' 후보 접수

전남도, 24일까지 3개 부문

전남도가 체계적인 위기대응 능력을 갖추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 안전에 힘을 유공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제6회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후보자를 오는 24일까지 공모한다.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사에서 강조한 재난의 선제적 예방과 적극적 대응 등 사람 중심의 애민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도입했다. 도민이 안심하고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주는 포상이다. 안전 중시 문화 확산을 위해 2018년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개인, 시군, 기관·단체·기업 등 3개 부문 10명을 선발해 시상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전남에 주민등록이나, 사무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활동하고 있어야 하며 공공기관과 기업은 공고일 현재 전남에서 경영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이병철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극한호우와 가뭄, 신종 사회재난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빈번해지는 미래사회를 대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수상자 선발은 공적 검증과 경력 사실조회, 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며, 시상식은 2024년 1월 개최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d@



지스트 설립 30주년 기념 강기정 광주시장이 16일 오후 광산구 광주과학기술원 오희관에서 열린 설립 30주년 기념식 및 비전선포사에서 임기철 총장 등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남서도 정치 현수막 함부로 못 건다

옥외광고물 개정조례안 마련

전남에서도 정치 현수막 게재를 제한하는 조례가 만들어진다.

1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이날 제 376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강문성(민중·여성 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본회의로 넘겼다.

조례안은 정당 현수막 설치가 무분별하게 허용되

면서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일정한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이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지정 게시대에 게시 ▲정당별 음·면·동별로 2개 이하로 게시 ▲사·도당,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의 관할 구역 내에서만 게시 ▲허위·허용·비방의 내용 포함 금지 등을 담고 있다.

강문성 의원은 "수령과 내용에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정당현수막이 도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심각한 정치공해 수준에 이르렀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시 '광주함' 타지역 장병 초청 투어

양림동 역사문화마을·5·18민주묘지 등 방문

광주시는 "15·16일 이틀동안 해군 '광주함'에서 복무 중인 타지역 출신 장병 18명을 초청해 '2023년 제2차 타지역 장병 빛고를 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병 빛고를 투어는 타지역 출신 장병들에게 광주의 민주정신과 문화, 역사 등을 소개하는 한편 관-군 통합방위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것으로, 2010년 6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해군 광주함 장병 18명은 남구 양림동 역사문화마을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5·18민주묘지 등을 방문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깊이 있는 설명을 통해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해군 '광주함'은 한국형 호위함이며, 광주시와 해군함정간 관-군 유대강화, 3함대 배치지역(목포)의 인접성, 옛 '광주함'의 전통계승 등 다양한 의미를 담아 명명됐다. 광주시는 2017년 4월14일 해군 '광주함'과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 교류를 하고 있다.

박남주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타지역 출신 장병들이 군 복무 중 광주의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이 문화 인권 평화도시이자 아름다운 문화 예술의 중심지임을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전라남도 JeollaNampo SSN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증사자의 존중 캠페인

사회복지증사자를 향한
모욕, 조롱, 비하를 멈추면

Stop Start

진정한 복지가 시작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진정한 복지가 시작됩니다.

사회복지증사자를 배려하는 실천방법

- 사회복지증사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해당 서비스의 전문가로 인정해주세요.
-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을 가지며 서비스를 받을 때는 감사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 반말, 욕설, 희롱, 무시하는 언행을 하지 않고 존중하는 언행을 부탁드립니다.
- 나의 부당한 요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